

금주일언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까닭으로 사람의 영웅이라 한다. 뜻을 단속하고 몸을 조절하여 스스로를 떨쳐버리고 끝까지 이룬다.
 <법규경·술천품 284절>

총장 선출 방식 제안

직원노조 노사협의회서

직원노조는 지난 29일 오후 3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정기노사협의회를 통해 총장선출에 대한 노조측의 제안을 학교당국에 전달했다. 이번 노조측에서 제시한 총장 선출방식은 지난 8월초 조합원(비노조원 일부 포함) 1백52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대표 10인, 직원대표 3인, 학생대표 또는 학생추천인사 3인, 동문대표 3인으로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5인 내외의 후보를 일차적으로 추천한다.

둘째, 교수 전체와 교수 인원의 10%의 직원대표로 투표인단을 구성하여 복수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한편 직원노조의 이러한 총장선출방식 제기에 있어서 민병천 총장 및 학교측은 "총장임명 자체가 재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기가 어렵다"며 "노조의 안을 재단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가 교수회와 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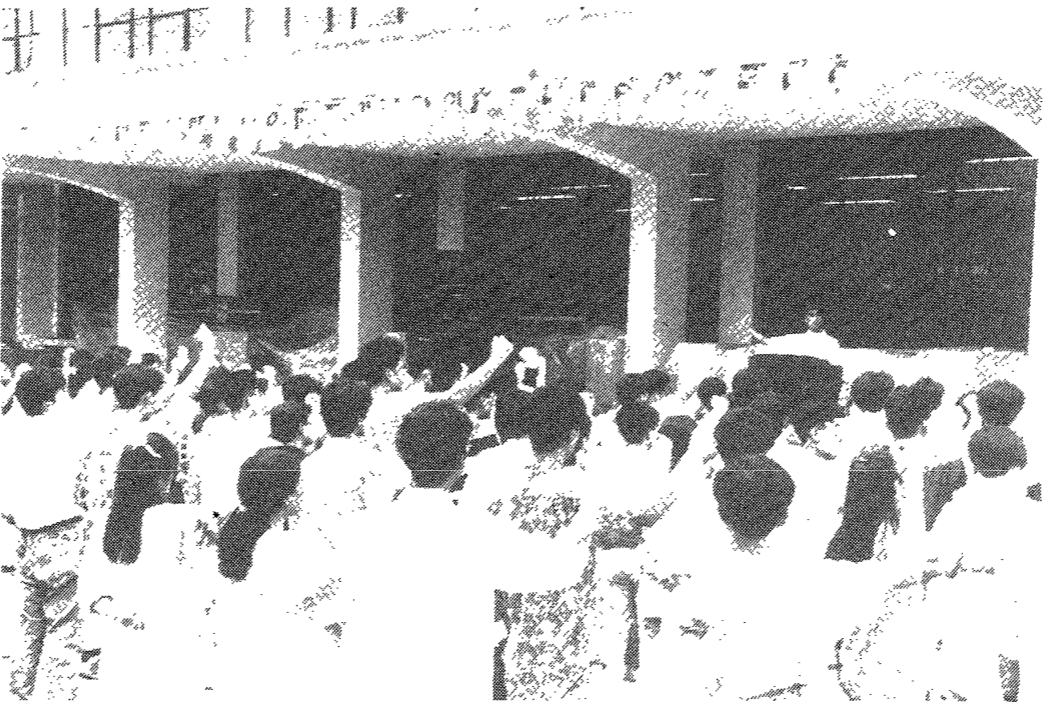
적인 대화를 해 나갈것을 요구했다. 서울캠퍼스 김윤길 노조위원장은 "총장선출에 대해 구체적인 안으로 제안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교수회의 임원진이 확정되면 9월 중순쯤에 교수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노사협의회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총무과)는 지난 29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총장, 부총장등 학교당국 5인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총장선출제도(안) 마련에 관한 내용 및 △복지기금 적립에 관한 내용과 △경비운영근무제 및 수위근무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는데 복지기금 적립에 있어서는 시기, 금액등에 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경비운영문제에 있어서 24시간 맞교대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1년동안 학교와 노조가 대책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도서관앞에서는 학생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장직선제 사수'와 '재단이사장의 총장직선제발안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사장 발언 규탄 집회 열려

학생회 재단에 공개질의서 전달

문과대, 이과대, 경상대, 예술대, 사범대, 야간간과 학생회등 6개 단과대 학생회는 지난 30일 '총장직선제 사수'와 '재단이사장의 총장직선제발안 규탄대회'를 도서관 앞에서 갖고 재단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불과 1차례 치러진 총장직선제를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없애려는 것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교수들이 동국의 중심주체로 서야 할것'을 요구했다.

공개질의의 내용으로는 첫째, 교수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 폐지발언을 한 재단의 진의를 밝힐 것. 둘째, 작년에도 요구했던 재단사무처장, 전신원장 교체에 대해 현재 입장을 제시할 것. 셋째, 개혁회의 이후 조계종단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본교에는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다던 참석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힐 것 등이다.

학생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정확한 입장표명을 전달하지 않으면 재단에서 총장을 낙점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본관 각 층을 돌며 민주총장선출, 자주화된 건설 등의 구호를 외치는등 교내선전전을 벌였다.

야구후원회 외부인사 이사영입

활성화위한 모임 통해 논의

야구후원회(회장=조희영·경영학)는 야구부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정몽규(정치외교학)교수, 김창수(역사교육학)교수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밤버스터호텔 2층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야구후원회의 활동부진에 대해 반성하며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광범위한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외부 유명인사의 이사 영입에 의견을 모았다.

체육부 관계자는 "야구후원회는 79년 결성 이후 본교 야구발전 위 한 기금마련등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입사관리위원회 회의

신인생사정원칙 논의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는 오늘(31일) 오후 3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입사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사관리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인생 선발에 관한 규정중 모집인원·지원자격·방법·일정 등의 신인생사정원칙을 기본안건으로 진행방안이나 배정등 일부확정된 인사요건을 조정할 것 이라고 알려졌다.

직원인사 이동

(서울캠퍼스)

△직위승진 △동국인선한방병원 서무과장 서리=김영인 △동국한방병원 서무과장 서리=구태희(이상 8월26일자)

△전보 △중양도서관 사서과장=이철교 △중양도서관 열람과장=유종기 △관리처 구매계장=문국래 △관리처 관과과(건설담당 대우-계장서리)=김재선 △과화관 관리계장=문용주 △예술대학 교학계장=박원규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김병호 △기획조정실 공보부=정경훈 △교

무처 학적과=신영배 △학생처 학생과=류병성 △총무처 총무과=정경실 △관리처 관과과=송중수 △중양도서관 사서과=윤주영 △중양도서관 사서과=박희훈 △중양도서관 열람과=김병훈 △중양도서관 열람과=최일우 △비서실=하미애 △부총장실=강은희 △총무처 경리과=김현영 △불교대학원 교학과=장금숙 △평정대학원 교학과=권지연 △산업기술대학원 교학과=최정숙 △불교대학 교학과=이영숙 △사회과학대학 교학과=이정숙 △경상대학 교학과=서정숙 △공과대학 교학과=김미숙 △중양도서관 열람과=이동은 △과화관=홍경득 △동대신문사=함영란 △직원노조 조합=박현숙(이상 8월26일자)

보리수

오탁악세(五濁惡世)

요즈음 비극의 나라 르완다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무지(無知)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하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한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처참한 질병과 죽음과 기아의 현장에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대원들의 봉사 장면들이다. 생사를 초월한 인간애의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극토는 보는 견해에 따라 깨끗한 극토(淨土)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러운 극토(穢土)가 되기도 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은 국가간의 분쟁을 비롯하여 영토·무역·인종·종교·사상등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증오하여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무지에 의한 결과이다. 물질이 풍족하면 할수록 더욱 분능적인 이유는 항락과 쾌락은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모녀를 살해하여 토막을 내어 암매장을 하고 재산을 노려 아버지를 죽이고 어린 아기의 장기를 떼어가는등의 폐륜의 실상은 모두가 가치관이 전도된 증상의 업보이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기원전 6백여년의 인도 사회도 오늘날과 비교하여 크게 다를바가 없었다. 바라문 사제자들의 신을 앞세운 흑세 무인, 인간의 행위보다 혈통을 중시한 카스트(caste)제도, 모른선과 악은 지을 자도, 받을 자도 없다는 도덕부정론, 인간은 하나의 물질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톨론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마타정에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속에서 진리의 깨침을 얻은 것을 이렇게 말씀 하셨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럽고 희유한 일을 하셨다. 시대가 흐르고 견해가 흐르고 번뇌가 흐르고 경생이 흐르고 생명이 흐린 사바세계의 오탁악세에서 바른 깨달음(正覺)을 얻고 증생들을 위해 세상을 얻고 모든 세상을 위해 살한다고 사리불이여 내가 이 오탁악세에서 갖은 고행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을 위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라"고 부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밝은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화학의세가 바로 불국정토(佛國淨土)일 것이다. 불보살이 사는 세계는 항상 정토이며 그분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崔法慧

교수동정

◇94학년도 2학기 특별기금에 의한 해외연구(94.9.1~95.2.28)

▲임동희(사학)= '한국 사회의 변천과정'에 대해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연구.

▲한진수(회계학)= '한국과 미국의 회계교육과 회계실무에 있어 컴퓨터 이용에 관한 비교'에 대해 플로리다대에서 연구.

▲강태호(조경학)= '역사도시의 공간구조와 경관변천과정-중국, 일본, 한국의 고도시를 중심으로'에 대해 중국 북경 청와대에서 연구.

▲김창수(역사교육)=오는 9월6일에서 11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김오진정(창·일전정) 1백주년 국제학술회의 토론회에 참석하여 '창·일전정 전후 한·청·일 관계'란 제목의 논문발표.

▲여인형(화학)=지난 8월28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화학회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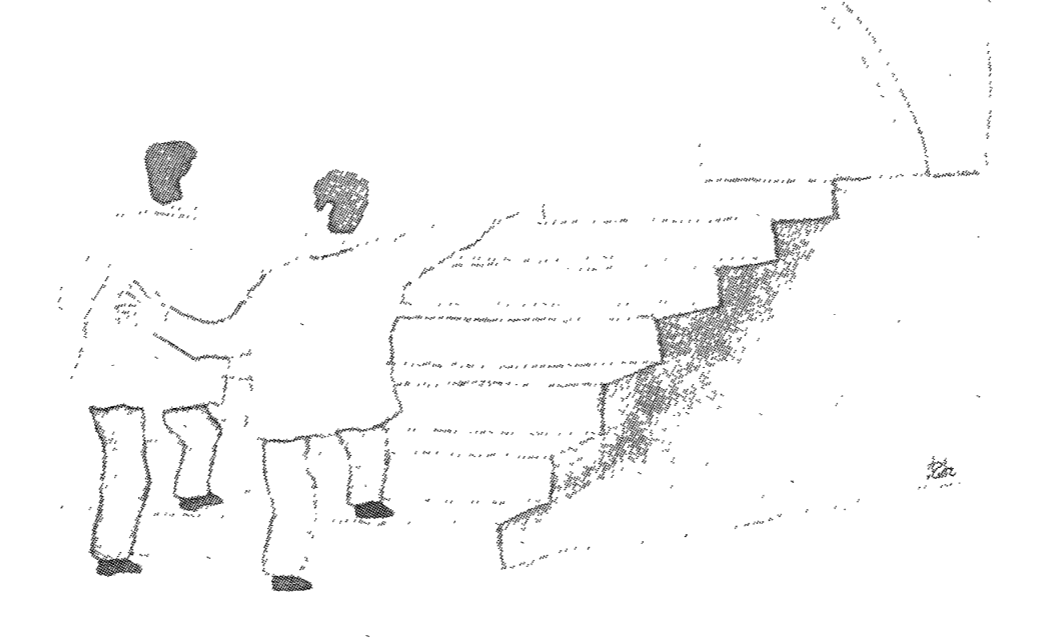
▲송재운(국민윤리학과)=지난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유학파 동양문화학회에서 중국인민일보와 동아일보 주최로 '공자사상과 21세기'라는 논문발표.

◇94학년도 2학기 서울-경주 캠퍼스간 교수 교류

▲최희승(중문학)=오는 9월1일부터 95년2월28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중급중국어(교양과목)를 담당

이곳이 동대신문사입니다.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신문,
 독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문,
 우리의 땀을 가치있게하고
 사람을 끌고, 당당하게 만드는 신문,
 이곳이 동대신문사입니다.



제36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 모집부문 및 인원**
 취재기자 ○ 명
 사진기자 ○ 명
 만화기자 ○ 명
 - 응시자격**
 본교 1학년내 재학중인 모든 분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집단면접
 2차 개별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입사원서(본사 소정양식) 1부
 -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4년 9월1일(목)~9월27일(화) 오후 5시까지
 - 원서 교부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옥내지하 1층, 본사 총무부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 본사 편집부
 - 전형일**
 1차 전형
 서울캠퍼스 94년 9월27일 오후6시
 학생회관 옥내 지하 1층 본사 회의실
 경주캠퍼스 94년 9월27일 오후6시
 학생회관 2층 본사 회의실
 2차 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정보 및 학생회관 안 게시판에 공고
- ※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장학금 지급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2603491, press11)

동아리 권익투쟁 하나된 힘으로 실질화해야

동연이 드디어 무거웠던 영령이를 털고 일어나 그동안 항시 제기되어 오던 동아리 권익의 실제화를 위해 실천의 의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동아리 권익 투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이 농성은 공간 문제를 필두로 한 제반의 자치기구의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기초적 환경설정이라는 것에서부터 삼천동 동아리의 전체이익에 기반한 공동의 의식을 형성, 표출 그리고 이들의 대표체인 동아리연합회의 자기위상의 확립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동아리의 특색인 '가족성'과 '전면성'에서 야기하는 것, 즉 조야한 시야 속에서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는 개별적 요구, 즉 개인적인 발상의 오류를 버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 공통의 문제로 삼아 하나의 힘으로 그것을 실질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특정 동아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문제화하지 않는 대다수의 동아리들의 일인한 사고

를 벗어 던지는 것이어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했고, 지금도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동연은 발벗고 뛰어 다니며 동아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 자기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동연은 삼천인에게 농성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하며, 삼천인은 대표체에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투쟁의 대상과 의의, 그리고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광범위하게 선전해야 한다. 이것은 학원민주주의 투쟁의 일환으로서 대상을 학교당국의 비민주적인 행정과 동아리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비자발적 의식의 개혁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진행되는 농성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정이라는 물적인 성과만이 아니고, 동아리인들의 의식이 자치활동에 대한 '불편'에서부터 민주화라는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성공하는 투쟁을 위해 동연을 위시로 한 '조직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산발적인 요구는 서로를 헐뜯게 할 뿐이고, 이것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종결될 수

밖에 없다. 동연의 모험일 수도 있는 이 투쟁을 작게는 서로가 이웃이 되는 장으로, 크게는 자기가 접하는 모든 것이 '민주화'의 의미를 갖는 곳 이길 바라며, 삼천인과 함께 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나.

김 향 수 (문과대 철학과)

주사파 논란 '좌·우의 날개' 의미 되새겨야

끝이 없을듯하던 여름도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속에 그 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동안의 가장 큰 성과를 얘기하라면 아마도 하나의 문제에 대해 이렇듯 한번도 전체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라 하겠다. 즉 '날개'가 아니라 '날개'라는 물음에 이런저런 차이없이 말 그대로 '날개'로 누구나 '난생 처음 겪는 무대'였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합의는 인간 서로간의 문제에 이르러선 여지없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말았

다. 남과 북의 내부적 사건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터져나오는 특종기사를 혼란 - '우'와 '좌'의 날개로 이 상의 -스럽게 접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잇닿아져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방학동안 읽은 책 가운데 리영희 교수님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이 그 책 제목만으로도 위의 '기본적 사고의 틀'에 대한 물음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뭐니뭐니해도 신문과 TV뉴스에서 가장 많은 초점을 받았고 학우들에게 화제가 되었었던 중의 하나는 아마도 대화가 '주사파'에 관한 기사들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느날 문득 모태와 총장이며 사제이기도한 분이 '여기도 주사파, 저기도 주사파'를 유행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나 언론은 완전소탕 합동작전에 나섰고, 심지어 '주사파'는 거의 매일 '철화', '최후의 한사람'까지, '사회주의 완성'이라든가 '주사파'의 완성을 계속했다. 증가부적으로 사들여지던 했지만 여전히 다른 공격 준비를 위한 짝꿍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극좌 사회주의의 논리 하나만으로도 현실세계를 설명할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 소련과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이 실천

하고 실험하였던 사회주의의 국가건설의 실패가 그 명백한 증거임을 부정할수는 없다. 북한이라고 해서 현재의 달려진 사회로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수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패배를 자본주의의 일방적 승리라고만 해석하고 자 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 역시 옳다고 할수 없다. 유럽, 가까이는 일본에도 사회주의의 정당이 있고 현실세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주의 이론들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대표적인 국가 미국에서 마약, 살인, 성폭행등의 자본주의의 가짜다문 범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찌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사파'뉴스를 지켜보며 학우들의 정치 무관심이 더 깊어지는건 아닐까 걱정스럽고 모든 진보적 운동단체를 싸잡아 비난의 대상으로 남의 생활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은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임을 얘기하고 싶다. 최근 '흙수렁'이란 말이 지난 시기에 가졌던 부정적 의미 때문인지 '한국중심의 통일'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강 철 규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알림

열린글터는 학내외의 모든 문제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독자부고의 내용중에 학교의 명예에 관련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공격적인 글들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호 동대신문(1153호) 열린글터에 투고된 내용중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특징적인 거명된것은 동대신문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조대 사진

달의 몰락 그리고...

안 준 옥 (경주 추무과 과정)



오늘을 사는 동국인

전농 기획부장 유기주 동문



'쌀수입 개방 반대, 우루과이라운드 국회비준 거부' 그동안 수 없이 외쳤던 이러한 구호들을 자신의 삶의 한부분으로 실천하고 있는 유기주 (59년출) 동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기획부를 책임지는 유동문은 농업고등학교를 마치고 91년도에는 농과대 학생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작년 10월부터 전농에 몸담게 되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며 쌀수입 반대 투쟁의 분위기가 결코 가라앉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그는 "힘에 벅찬 투쟁도 많았지만 내부다지기였다고 생각하며 현재는 전체적 흐름상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유동문은 그간 투쟁에 대해 아직도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다. 침체된 민중운동이 쌀투쟁을 통해 일어났다고 평가하며 쌀개방을 저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으나 "미국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인식했고 현정부의 무능한 집행력 또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국민의 98%가 수입개방을 반대한다"고 확신하는 유동문은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거부는 부당한 국가의사에 대한 반대표시"라고 말한다.

정부가 9월 국회 비준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쌀수입 문제는 민족적 관점으로 봐야하기에 농민생존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바라볼때 7천만 생존권이 담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유기주동문에게는 앞으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꿈이 있다.

살아가는데 대학시절이 많은 도움이 된 시기였다는 그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한편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무엇이 지표이고 무엇이 잣대인가?" (김소영 기자)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기성언론 반박기사 돋보여

과연 언론의 자세는 어디쯤일까. 보수 기성언론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회담을 성사시켜 통일을 이룩하지는 식의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짖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고 정상화답이 무기한 연기되자 모습을 백발필드 바꾸어 주사파가 어쩌니, 범민족대회는 불발단체들이 모여서 벌이는 불법집회니 하며 신공안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보수기성언론의 모습에 대해 동대신문은 어떠한가. 1153호 동대신문을 보자. 4면의 사회면의 기사에서는 이 시대 기성언론이 보여준 못 바뀐기사의 모습변화에 대한 책임추궁과 과연 정론의

언론이라면 그 잣대를 바로 잡으라는 심층적 기사가 돋보였다. 그리고 6면의 범민족대회 특집면에는 처음 팔팔때부터 눈에 박히는 듯한 사진과 기사의 편집이 이제야 동대신문의 가로짜기 편집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면에서도 가운데의 중심 기사의 내용이 4면의 기사와 연관되어 되어 기성언론의 상업적 기사와 대학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다르지를 이해할수 있었다. 아울러 양옆의 가림기사와 인터뷰 기사 중심 기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제 2화기도 시작되었다. 7면의 퇴임교수 인터뷰기사의 타이틀처럼 대담의 아쉬움과 새로운 만남의 기대처럼 아쉬움이 많은 1화기였지만 2화기의 새로운 발전된 모습을 위해 전 동국학우의 눈으로 동대신문의 모습을 냉철히 바라볼 것이다.

고 재 환 (상경대 국제경제학과·본사모니터)

동/문/칼/럼

극소수에 제한된 '아름다운 프로' 자격 정부·기업, 여성취업대책 수립해야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공기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나는 결실을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은 아니다.

수시로 접수되는 취업여성들의 직장내 차별에 대한 상담, 모집·채용 차별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진 여학생들의 심각한 취업난 등이 결실의 가을을 빈곤하게 만든다.

취업을 앞둔 여고, 대학 여학생들 중에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취업을 위해 이 가을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겠는가.

얼마전 제간을 시끄럽게 했던 여학생들에 대한 용모제한과 고음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문제는 인재를 문재로 만들고 여성을 무능한 실업자군으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고생들의 전경이라고 해야 적절한 취업난과 용모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은 여대생들에게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극히 소수에게만 '아름다운 프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가이거나, 집안이 남달리 부유하거나, 부모님의 경제사정이 워낙 좋아 기부금을 내거나 아니면 타고난 얼굴이 탈렌트를 능가하거나.....

실업여대생들의 78% 이상이 취업을 희망한다는 한 연구보고서에서 실업상태의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

정부는 항상 유능한 여성인력활용을 떠들면서 값싼 기존 여성인력을 저임금 업종에 몰아넣어놓고만 하고, 기업은 여

성채용 확대를 목청높여 떠들지만 취업은 희망하는 여성들의 희망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기간이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에 대해 해당기업을 고발조치하거나 취업상태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당찬 여성을 만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쉽지 않으며 아무에게나 권한 수 없다. 개인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가을이되면 결실을 노려하게 할 날이 일찍 오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인력을 바르게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길이다.

신 미 숙 (일문 89출-한국여성단체연합)

목 먹 골

축하합니다

9월2일 다가 올 현주의 생일을 축하하며 - 겸공 2년들

김정민선배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 자·과·연 후배일동

패장님, 경배, 경사! 생일 축하해 중환아, 기원하 많아 아팠지? - 공대 노래패 목석성 김경숙

HAM의 예쁜 YL, 혜연이의 생일을 축하한다. - 20기 YB

좋은나라 비서실장 안준희의 생일을 축하해요. - 좋은 나라

22 감성용, 복학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재발 부디 원아의 무법자 (삼권총)는 되지 마세요. 알라비! - 당신의戀사

성철이의 근엄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태

선복이형! 늦게나마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회계학 연구실 후배 일동

전산통계학과 학회실이 생겼어 된 것을 축하하며...미루... 진심으로 - 임해경, 서누네

9월의 생일을 축하하며... 경영학과 93, 3인방의 단결을 꿈꾸며...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의 영도따라 갑시다. - 춘철선배지름? 네

올해 복화하신 신유진누나의 결혼을 축하드려요. - 법학과 94일동

양근이의 인대를 축하합니다. 양근아! 잘가! - 물리 93일동

정의과 농활영웅 인투이의 생일 (9월1일) 축하합니다. - 계란리 주민일동

새침한 은정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재영·나영·승환·원준·주성·하석이가

창숙이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 90 농학 동기들

9월20일 홍선영의 생일을 미리 축하합니다. - 무역

알립니다

매복고동문회가 9월1일 6시 불상 앞에서 있사오니 동해의 푸른정기를 받으신 분은 꼭, 필히 참석키 바랍니다! - 휴학생 (산공)

나우콤에 동국대 통신모임 백상이 생겼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백상자기

이천!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2일 금요일 6시에 분수대에서 멋지게 봅시다. - 잘나가는 이천 항우회장 백

석관동문회. 일시: 9월2일, 시간: 5시, 장소: 불상 앞 석관동문회와 조인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백상자기

과천동문회. 9월 (금요일) 5시 정각원으로 - 과천 동문회 총무

주사파 증거가 9.1 샤프에에서 제시됩니다. 주사파(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 - 회계 (08) 1일HOF추진위

2화기에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 CAPS. 광

그리고... 박동규학형의 패유를 받습니다. - 농생과 PC회장 및 회원일동

총여학생회 임박식에 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9대 총여학생회

현주야, 방학동안 무지 보고 싶었어. I Love You - J.Y.

언제나 기본종계 살았을 좋겠다! - 역교과 민세!

동 / 악 / 광 / 장

을 바라며 잘해보자고! 2화기 방송과 방송제 - HO

승성이 단식 결의를 함께 합니다. 앞으로 야 총 일꾼들의 힘찬 투쟁의 결의를 믿습니다. - 8, 9, 10대 야총 회장

사학과 1학년 과대표로 재영이가 뽑혔어요. 잘하겠지? - '94

2화기에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 CAPS. 광

그리고... 박동규학형의 패유를 받습니다. - 농생과 PC회장 및 회원일동

총여학생회 임박식에 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9대 총여학생회

현주야, 방학동안 무지 보고 싶었어. I Love You - J.Y.

언제나 기본종계 살았을 좋겠다! - 역교과 민세!

2화기에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 CAPS. 광

그리고... 박동규학형의 패유를 받습니다. - 농생과 PC회장 및 회원일동

총여학생회 임박식에 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9대 총여학생회

현주야, 방학동안 무지 보고 싶었어. I Love You - J.Y.

언제나 기본종계 살았을 좋겠다! - 역교과 민세!

은 방 골

축하합니다

복학을 무지무지 가슴아파하며 이동일 (관경·90) 이병용 (사·90) 강근호 (경제) 진강일 (물고) 왜 인간들이 근대에서 말뚝 박지않고 복학을 하는지! 행복을 불행시작의 복학을 여수로 가슴아파하며 하여튼 축하해. - 산적이

1년8개월 만에 HAM자격증을 딴 훈상이를 축하합니다. - 친구 오리가

일문과 축구동아리 는하의 방이 생겼습니다. 축하해주세요. - 날개 화이팅

재준이가 군에 갔네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 국경1년

현주야, 방학동안 무지 보고 싶었어. I Love You - J.Y.

언제나 기본종계 살았을 좋겠다! - 역교과 민세!

2화기에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 CAPS. 광

그리고... 박동규학형의 패유를 받습니다. - 농생과 PC회장 및 회원일동

총여학생회 임박식에 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9대 총여학생회

현주야, 방학동안 무지 보고 싶었어. I Love You - J.Y.

현숙아 O.P합격 축하한다. - J-S-P

그날이 오면 여러분! 드디어 개강을 했어요. 이번 2화기에도 당찬 모습으로 투쟁해요. - Miss Park

90학번 영준이, 93학번 준상이, 같은 학번 은정이 생일 축하해요. - 한문 2년일동

수정이가 영미누나 91학번으로선 선착순 졸업. 정말 축하하고요 사회에서 꼭 성공하쇼. - 국민91학번일동

밀양 향우회, 향우회합시다. 방학동안 축였는지 살았는지 생사확인도 하고 오는 1일 (목요일) 오후 5시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만나요. - 회장이

대자원 봉사단 9월1일 개강 Party합니다. - 8기대장

인문대내 여성문제연구모임 '하늘의 절반'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여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하늘의 절반 자정회장

9월1일 불취하게 전수 발표회가 있습니다. (내용= 담도풍물장소= 교내 사거리 시간= 오후5

시) 많이들 구경오세요. - 불취

학사모사전 빨리 찍어요. 4학년들! - 풀·준·위

열심히 합시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문화회 여러분 더욱 치열해 집시다. - 16기 일동

始林 O.B모임의 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편집위원일동

정운아! 힘들었제, 더운데 쾅 쾅대며 나오느라고... 우야졌노 이상 나온김에 힘차게 살아봐라. - 1004가

무작에 목탁소리가 다시 뭉쳤습니다. 아자! 새학기 열심히 일하자구요. - 목탁소리 94일동

그리고...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에서 아깝게 대상을 놓친 팔배 여러분 하하! 팔배는 강합니다. - 13기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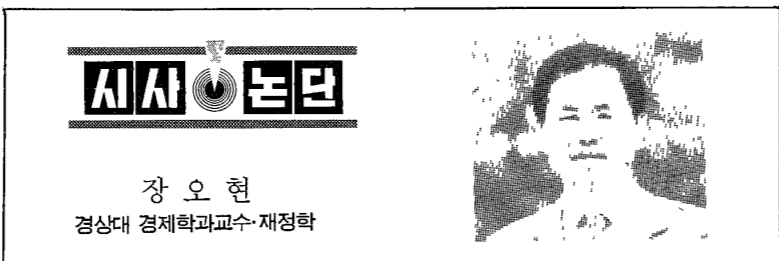
오정기 선배의 통한의 오른 다리의 패유를 빌며... - 5기일동 농구부

군에 간 철화92들의 건강과 강한 모습되어 다시 만나길 빌면서... - 페92의 잔재들이

금융실명제 조기정착과 세계개혁 기본방향

종합 과세로의 이행... 성공적 정착

작년 8월12일을 기하여 본격 실시에 들어간 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공평과세의 실현,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달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은 탈세와 불로소득의 근원을 축소하고 건전한 부의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신속회유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활동이 우대받는 투명한 사회 풍토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장오현
경상대 경제학과교수·재정학

금융거래정보에서는 검은 돈이 정지될 것을 애국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한 정정규칙의 부작용은 방지될 수밖에 없다.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불의와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탈법적인 부의 상속과 증여를 예방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가능케 함으로써 부유층과 서민계층,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와 자산소득자 그리고 고액금융소득자와 소액금융소득자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실명제의 성공으로부터 세부담의 경감혜택을 얻고 동시에 건전한 재산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창조적인 기업활동이 우대받는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개혁이며 따라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물론 이상은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기대되는 장기적 효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는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세개혁의 조기단행 여부가 성공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면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계개혁의 기

본방향과 그 원리는 무엇인가?

금융거래의 실명화는 매출외형과 사업소득 및 여타 세원의 양성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및 상속·증여 등에 대한 세부담이 가명제하에서 보다 크게 늘 수 밖에 없고 수익율이 낮아지며 사업의 욕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도산의 위험을 높일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이러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함으로써 세원노출을 유인하는 세계개혁이 시급하다.

동시에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필수적이다. 재부부는 작년의 세계개혁에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소폭 인하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하향조정을 받고 있고 연세사업자의 외형이 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1억5천만원까지 증가할 때, 증가분에 대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과세특례자에 대한 한계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정면 배치된다. 왜냐하면, 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세원이 노출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증가분은 과세특례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외형노출로 인하여 사업소득세

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이 실명제의 정착에 협조토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전반의 발전에 부합되며 올바른 방향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특례자는 업종별 및 매출규모별로 표준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계산한 부가가치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동일한 논리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기업들이 실명제의 조기 정착에 협조토록 유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현실화하고 그 대신 한계세율 하에서 과세특례를 받고 있는 연세사업자의 외형이 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1억5천만원까지 증가할 때, 증가분에 대한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제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고 시가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은 1%정도로 합리화하며,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구분을 없애고 토지조과이익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토지관련 압도소득세와 특별부가 가치세의 감면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정

비함으로써 세제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결론으로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와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제는 가능한 조속히 실시하고 금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종합소득,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의 종합과세 추진일정을 밝히야 한다.

이러한 세계전반의 개혁이 조기에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 세원을 은닉하여 조세포탈을 했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소득세 및 상속·증여 그리고 각종 과세대상 자산의 세원이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도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성공하려면 전반적인 세계개혁이 조기에 단행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실명제로 인하여 세부담의 경감혜택을 누리고 또한 과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세제의 개혁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합과세로의 이행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궁극적 목표가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과 조세정의의 실현에 있음을 감안할 때 19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는 차명 및 도명으로 남아 있는 금융계좌의 실명정환을 촉진할 것이며, 납세자의 세부담경감과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할 것이며,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필수불가결한 제도 제반의 개혁을 손실해서 도모해 나가기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사설

보수회귀를 경계한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왔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는 다시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본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공안분위기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으면 가만히 서있는 것 만으로도 물러섬이 되어 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꺼꾸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잠시만 둘러보면 이런 보수회귀 현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첫번째로 볼수있는 현상으로 경찰의 학원진입이다. 92년 범민족대회 이후 2년여만에 다시 등장한 일이다. 당시만 해도 새벽 서너 시경도에 진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오후6시에도 학내로 진입하고 있다. 또 학내 수색의 명분도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10여일 전 있었던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수색은 그 좋은 실례일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학내진입이외에도 또 다른 보수회귀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조직사건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내외의 조직사건은 대표적인 공안탄압의 양상으로 보수주의 회귀의 대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지난 범민족대회를 전후하여 각 대학에서 앞다투어 발표한 '학내 정치성직회 불허'조치, 교육부 공문을 통한 학생자치활동의 통제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서 얼마전에는 '내란 및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던 '12.12의 주역'들이 고소자들을 맞고소한 그날 웃어넘기기엔 쓸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또한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김영삼정권의 최근 실정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렇듯 사회의 분위기가 보수회귀로 흐르는 것에 뒤질세라 학교당국의 보수성향도 뚜렷해 지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학내주체들이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보수회귀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실체를 보면 교육부라는 정책당국의 외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이는 공안탄압의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탄압 의도가 내재해 있는 것이어서 학교당국의 면학분위기조성이라는 명분은 반감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학내·외의 보수회귀 현상은 심각한 반역사적 기류임을 우리모두는 경계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중국만평

박원진



루어진 사회이다. 대학사회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방침인 것이다.

이 방침에 대해 불교대 학생회장 최정훈(인철 4)군은 "학생간부는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믿는 학우들이 뽑는 것이지 학교당국에서 학원으로 통제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집회불허 방침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마저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한다.

행정조직중 학생들과 가장 가깝다고 자부하는 학생처가 발표한 방침이 깊은 고민 없이 집행했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처를 듣는 얘기"나 스스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어설픈 것은 아니어야 하며 공안탄압과 발발취 학생탄압의 시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유리 기자)

'학내 쇠신을 위한 5대 방침' 분석

학생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학내구성원 의견 수렴없이 성과 미지수

본지 지난호(1153호)에 실렸던 학생처(처장=노완섭·식품공학)의 '학내 면학분위기 쇠신을 위한 5대 방침'은 애초 예상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 5대방침을 살펴보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산적이고 학술적인 학생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비생산적·비학술적 활동은 금한다.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정치성을 띤 집회를 불허한다. △취업설명회 강좌, 취업가이드 발행으로 학생취업을 극대화한다. △현재 평점 1.5이상인 학생간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평점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평점 1.5이하인 학생간부가 차명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장학금 실명제'를 실시한다. △학생간부의 정예화를 꾀한다

등이다.

이 방침은 기본적으로 학내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해 있지않아 학생처측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작게는 학생간부와 크게는 학생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방침이 직원들에게조차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엿보였다. 학사보고회에서 학생처장이 발표한 내용을

학생처 관계자에게 보충하러 왔지만 대답은 "처음 듣는다"던 것이다.

방침의 내용중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이면'면학분위기 고취'와 '취업의 극대화'란 할수 있다면 생산적이고 학술적인 학생활동을 하기위해 만들어진 동아리들이 공간이 없어 존망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없어야 하며, 취업대책도 회사별정보 개최·

취업가이드 발행등의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정치성 집회불허' '장학금 실명제' '학생간부 정예화' 등은 대학사회의 '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망각한채 교육부의 방침만 고수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있는 당연한 얘기. 대학은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으로 이

내가 專家라면 나의 선택도 專門的이어야 한다



21세기 종합화학 산업을 선도하는 한농에서 전문가로서의 포부를 펼쳐 보십시오.

1943년 창업하여 51년간 우리나라 과학영농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한농-한농은 오랜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항상 진취적인 목표와 실천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생산·판매의 극대화로 화학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을 주도할 환경사업본부, 식품첨가물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바이오사업본부 등 새로운 사업을 펼쳐는 것은 물론 향후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종합 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의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농과 함께 전문가로서 포부를 펼쳐 보십시오.

1. 모집내역

| 부문 | 모집인원 | 해당학과 | 응시자격 |
|----------|------|---|--------------------------------|
| 영업 기술 연구 | 00명 | 식품공학, 식품공학, 화학, 농학, 농화학, 농생명학, 식물보호학, 원예학 | 대학원 및 4년제 대학졸업 및 95년 2월 졸업 예정자 |

×대학원 출신자는 1966년 1월1일, 4년제 대학 출신자는 196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남자는 군면제)

●근무지 서울 및 전국 도청 소재지

2. 제출서류

- 사필이력서
- 최종학력 전학년 성적 증명서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13(우편번호 135-010)
- 접수기간 1994년 9월 14일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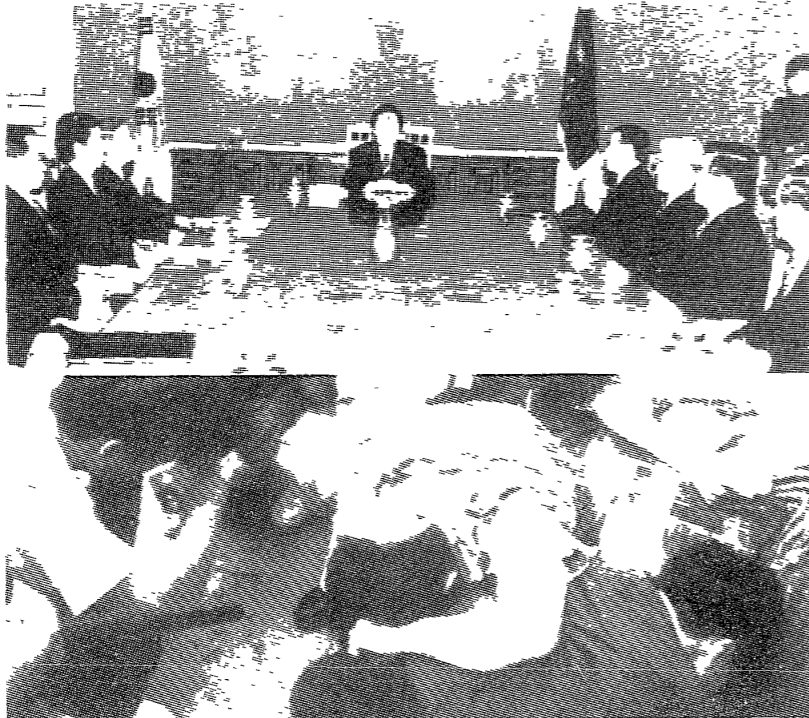
- 이력서 상단에 연락처번호, 희망부문 및 근무지를 명시할 것



기획시리즈

김일성 사망후
남한사회
변화

1. 정계 보수주의
실체와 민민운
탄압 의미는.
2.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은 몇%.
3. 정상회담은
언제 재개될것인가.



◇'문민정부=신공안정국' 있을 법한 얘기인가.

또다시 고개든 마녀 사냥

신공안정국 '해부'

광기어린 공안 통치, 검찰·안기부·보수언론 합작

3당합당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선언하였던 '신한국'의 대통령 배정에 버금가는 한 사건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발언(이)이 그렇지 않아도 짜증스런 8월의 무더위를 달구고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고전적 명제를 인정한다면 사제 역시 제각각의 사회화 과정에 따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피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단선적인 현실관을 갖고 있는 그가 이름없는 시골성당의 일개 보좌신부가 아니라는데 있다. 한 나라의 추기경보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제이자 명문사립대학의 총장으로서 그의 발언은 공안정국을 가속화시킨 촉매로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민주화 운동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가 주사파 혹은 그 배후라는 애매한 손짓만하면 국회의원도 대학교수도 근거를 문하고 언론에 의해 빨간색으로 덧칠되고 공안정국의 타격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생명과 합법적 지위에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되는 마녀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공안정국 혹은 공안통치라는 정치사건에도 윤리까지 얽은 비화학적 용어는 그 개념의 엄밀성 여부를 떠나서 상황을 급격한 역전이라는 공통된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1989년의 공안정국이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3당합당을 통한 여대야소로의 정세역전을 가져왔다면 이번의 신공안정국은 남북관계의 긴장고조와 개혁국면의 소멸을 가져왔다. 이처럼 공안통치는 그간 시민사회의 분출이나 다수의 개혁요구로 이루어진 일정한 성과물들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세리(稅吏)의 고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

박종 총장이 다가올 UR의 비준과 각종 지방자치제 선거를 언급하면서 붉은 집단지라고 지목한 사회세력이 바로 한총련(대학생), 야당(이부영의원), 대학교수라는 젊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번 공안정국은 성질급한 대학총장의 무리 총정에서 비롯된 폭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8월의 광기어린 공안통치는 한반도의 탈냉전을 가속화시킬 북미협상의 일괄타결과 남북정상회담의 급진화에 위기를 안고 있는 안기부와 검찰등 공안세력과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민화 특사의 방북으로 조성된 1989년의 공안정국이 3당합당으로 규결된 것처럼 신공안정국 역시 향후 정치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UR비준을 고려한 사전정치작업의 일환으로서 반대세력에 대한 선제공격의 의도를 갖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1995년으로 예정된 4개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과 민주화진영에 대한 사상적 흡입제기라는 계산된 의도를 깔고 있다. 이번 3개 시군(대구, 경주, 영월)의 보궐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봄에 통과된 정치개혁법은 집권당의 선거 프리미엄을 상당히 상쇄시키는 반면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세력에게는 전례없이 유리한 의회출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안정국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민주화세력의 자원을

무력화, 분열시키므로써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리고 있다.

공안정국이 일방적인 정적결정구조와 절차가 무시되고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종립근거를 두고 있는 여악적 국가기구에 의한 정치운영의 전횡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데 시사받을 수 있듯이 이번 소동은 현 정권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즉 그간의 개혁과정이 대통령 1인에 의한 상징적인 과제에 한정됨으로써 개혁세력의 입지를 확대시키고 극우정적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치의 구조적 정에 실패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통한 사회세력간의 역학재조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안통치방식은 어렵사리 얻은 진보진영의 그간의 성과물들을 휩쓸어 주지 않는 태풍이 될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참으로 기이한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문민과 개혁을 표방한 정부가 탈냉전의 국제주류에 위치해 열풍이던 미국으로부터 인권문제를 지적받고 있고 5·6공군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교재의 국정교과서와(경상대사건)가 획책되고 있으며 날도 덥고해서 그냥 해본 사제의 발언이 큰 할랄한 신문의 사회면을 매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 즉 이성에 바탕한 정치와 개혁의 상실을 연출하려는 세력들이야말로 바로 이땅의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다.

정 상 호
(고려대 정의와 박사과정)

해설 - 조계종 개혁 중헌 결직 금지·총회의원 직선제 제도화 - 지말적 개혁

지난 8월11일 개혁회의는 3개월 넘지 않아서 중헌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개혁의 중헌은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많은 독소조항을 개정하였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여야 할 부분은 첫째 총무원장 1인의 중헌독점을 가능케 하였던 총회의원(대회)의 결직금지과 총회의원 직선제를 제도화 한 것이다. 과거 총무원장이 주지명령권을 손아귀에 틀어쥐고서 총회의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와 교구내 주요소임자들을 장악하여 중헌을 완전 독점했던 전근대적 폐단을 제도적으로 개혁한 것이다. 둘째로, 상설적인 감사처를 신설하여 총무원장의 감사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세째로 총무원(행정), 중앙총회(인법), 경제원(전법)의 삼권분립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인사의 상호 결직을 배제함으로써 독립성을 제고한 점도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를 더 확대시키거나 정산하지 않은 점도 있다. 우선, 중헌의 각 기구가 내실화 되고 있던 기구(교구총회, 교육원, 포교원 등)가 다시 생김으로써 중헌(중헌)의 정치, 행정 구조)에 많은 인체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략 추산해볼 때 조계종에 적을 두

고 일정한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승려는 약8천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중 50%가 조금 못되는 숫자가 비구이니 약4천명 정도가 된다. 비구가 중헌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국의 사찰 약1천8백개 주지 및 총무, 교구본사25개의 주지 및 7직, 중앙총회의원 1백여명, 교구총회의원 약6백명 등 줄잡아 2천 6백명 정도이다. 비구4천명중 학승 및 선원수좌 약1천명을 빼면 결국 대부분의 비구가 비승을 하게되고, 온전한 의미의 결직금지지는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개혁회의는 이처럼 방대한 중헌 행정인력을 '재가불자의 중헌참여 보장'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봉쇄하였다. 특히 재가불자의 중헌참여 봉쇄는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대승교단 초기의 근본모습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개혁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둘째로, 출가승려의 무소유정신과 사찰 운영의 공개 및 사부대중 공동운영을 분명히 하기까지 않은 점은 중헌본규의 근본원인을 남겨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중헌 본규가 대개 주요관공사찰의 주지자리에 대한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상기할 때 이는 개혁추진세력조차도 이러한

비구의 기득권을 완강하게 고수하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른것은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거론하면서 유독 돈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일단 개혁중헌은 사부대중 중에서 출가 2부중(비구/비구니) 사이의 중헌운영의 합리화와 이해관계의 조절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세력이 주장한 다음과 같은 개혁목적에서는 당분간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불교가 역사 속에 자기위상을 되찾아 이 사회의 정신적 지도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중헌을 개혁해야만 한다. 그 개혁이란 지말적(지말적) 개혁이 아니라 모든 중도들의 힘을 모아내는 본질적인 개혁이어야 합니다"(실천불교 승가회의 청원서 중에서)

개혁세력 스스로의 이러한 애초의 규정이 비추어 볼때 이번의 개혁중헌은 본질적인 개혁이 아니라 지말적인 개혁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윤 남 진

(한국재가 불자 연합총재부장)

시사 초점

현대중공업 타결 의미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61일이라는 기록적인 94.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이 일단 마무리 됐다.

노조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무분규 원년'을 선언한 올해초 현대 그룹측의 발표가 무색했던 이번 정치는 지난 6월24일 노조측의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7월20일 회사측의 불법정조의 신고, 직장폐쇄, 이어 노조측의 역화 천원가사(LNG)선 및 코리아 크레인 점거 능성 등으로 이어져 극한 대결의 양상까지 예상됐으나 이번 극적인 타결로 노·사양측의 무승부가 이뤄지게 됐다.

노조측의 '무노동, 무임금'수용과 회사측의 '고소취하'를 주축으로 한 이번 합의는 그러나, 신공안 정국의 와중에서 노조측의 불법등 타결이후 및 협상과정에서도 '강성이미지' 구축에 있어 매달리는 언론의 일방적인 회사측 입장 표방 보도로 자율 해결을 지향한 노조측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회사측은 직장폐쇄 단행이라는 과잉대응과 함께 노조의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몰아 세우면서 협상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복수노조 및 제3차 개입금지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현행 노동법 개정을 다시 올해안에 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반복하고 있어 제2호 중견건설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 안팎에 새로운 정점을 던져주고 있다.

(사회부)

동약로

'무(空)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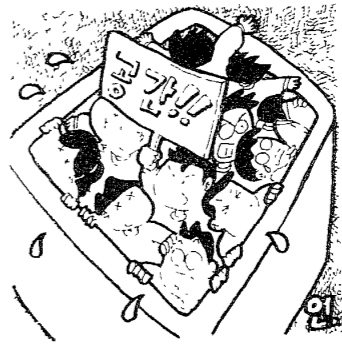
유난히도 더위가 극성을 부린 이번 여름, 학생회관 5층 검도부방은 언제부턴가 이상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책상과 의자, 사물함이 자리잡고 있는 검도부방을 도복으로 꽂 채운후 뒷자리를 피고 밖에서 운동후 휴식을 취하던 검도부 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느날 보니까 죽도와 도복에 곰팡이가 난거예요. 통이랑이 좁은 것도 공간이란 구멍이라고는 문밖에 있어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열이 났네요"

결국 검도부는 동아리활동에 지장없는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재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 손짓사랑회와 자리를 잡고 있다. 손짓사랑회는 총학생회의 부활로 인해 기존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 임시로 세미나실에 있는 것이다. 민중미학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처지로 이전의 검도부방에 머물러 있는 실정.

이에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권익보지와 최소한의 안정적인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공간 확보를 요구하



며 어찌로 7일째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생회관내 동아리 공간문제는 몇동아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60동아리 전체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며 동원 사무국장 이병곤군은 현재의 상황을 정동아리가 동거 해결해야 한다

고 말한다.

한편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내년공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학교를 상대로 공간을 요청한다고 해도 공간이 없지 않다"며 제한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간없이 발생하는 공간문제,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학교...

과연 지금의 현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교육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적이래 학교를 건립하고, 대책없이 머릿수 늘리기로 학교를 키우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문활동조차 보장하지 못한 '윗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본다.

(곽주영 기자)

Anam

175mm

거꾸로 보자!

in-X

거꾸로 보면 고정관념은 깨지기 마련이지. 예를들면, 오디오는 그래도 크게 좋든가, 오디오는 가까운 품나든가하는 말들. 거꾸로 보면 책상위에 올려놓을만큼 조그맣고 칼라도 다양한 마이크로 오디오도 있는데... 때때로 세상은 거꾸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델타-M7

- 최첨단 4웨이(기동기능선, 음향CD기동기, 음향기동기)를, 전방면에서 오디오로
- 최고급 스피커(드라이브/CDP)를 2인분만 EOD형 8인스피커 및 5도드 음향필드 마이크로, 5도드 다스플레이, 카드형 리모콘, AM스테레오기능
- 에어 on/off 및 예약기능, Sleep기능, 마이크로 및 에코기능
- 폭 160mmX 높이 175mm 초미니사이즈

W448,000

In-X TECHNOLOGY

4시 최첨단 인공지능-버튼 하나로 자동기능완전 동급최강 50와트 파워출력 최고급 스피커(드라이브/CDP)를 2인분만 EOD형 8인스피커 및 5도드 음향필드 마이크로, 5도드 다스플레이, 카드형 리모콘, AM스테레오기능

In-X FASHION

신시대 감각의 다양한 칼라 EOD형 8인스피커 및 5도드 메모리 기능 마이크로(사이드)의 광택한 디자인 2단 분리로 레이아웃도 자유

음향적 성능 아남델타가야제

- 장기적: 10년 내구성(전용대 포함)
- 장기적: 10년 내구성(전용대 포함) 5도드 음향필드 마이크로, 5도드 다스플레이, 카드형 리모콘, AM스테레오기능
- 장기적: 10년 내구성(전용대 포함) 5도드 음향필드 마이크로, 5도드 다스플레이, 카드형 리모콘, AM스테레오기능

정수리점: 서울 27동(가정) (당일 소문 유료) 신원로, 서울 프롬비서: 02-555-4955

마이크로 칼라 콤포-아남 인.엑스

1년간 북경에 파견된 해외 연수 교수 연구기

북경에서 조사한 한국학 희귀 고서와 고문서

필자는 일년간 북경대학에 머물면서 북경지역의 한국학 관련 고서와 고문서 2백여종을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장서량을 자랑하는 북경도서관, 중국 대학도서관의 대명사인 북경대학 도서관, 중국에서 가장 다방면의 책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북경 사회과학 도서관을 주 조사 대상으로 삼고 거기다 개인장서와 고서점을 포함시켰다.

중국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학 관련 고서들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미정리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목록에는 올라 있지만 책이 없는 것, 목록이 잘못 작성된 것이 의외로 많았다. 그리고 한국학인 중국학인지를 잘 못 판정한 것, 저자와 연대를 잘못 파악한 것이 자주 눈에 띄었다. 개인장서와 고서점의 경우도 이런 현상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한국의 고문서와 고서가 나왔다고 전화로 급히 알려달라거나 보면 출판한 것은 거의 한 건도 없었다. 중국 것을 한국자료로 오판했거나 모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본의 물결을 따라 한국인 선호품을 모아 우선 돈을 먼저 보자는 상술이 이 분야에서도 너무 앞서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공공 도서관과 개인 소장, 또는 고서점에 간혹 뜻밖의 한국학 관련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자료들을 중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학 관련 고서와 고문서 중 한국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본 몇 가지 책과 고문서를 골라 여기 소개한다. 고서와 고문서의 소개 방법은 주로 출처와 내용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런 글을 쓰는 까닭은 한국 독자나 연구자들이 각자 필요한 자료를 시간 낭비 없이 곧바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주된 임무기 때문이다.

한국학 관련 고서

중국의 한국학 관련 고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인들이 저술한 한국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들이 저술한 한국학에 관한 것이다. 한중 관계사가 말해주듯이 이 두 갈래의 책은 중국에 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있다. 현재도 명·청·중국인 문집에 들어 있는 한국학의 시문, 역사 자료나 한국학에 관한 그들의 단독 저술은 상당량에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개연성은 이미 '조천록'과 '연행록'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뒷받침해 준다. 조천사나 연행사의 기록은 역대 중국 왕실과 사류들이 부단히 한국학 관련 고서 중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거나 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판단되는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중국인 저술

고구려호텔황비집석: 이 책은 필자의 이번 조사를 통해 한·중·일 3국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지는 아주 귀한 자료이다. 저자 조규후(자 지여)의 수고본이며 1책 1합으로 소장되어 있는 한장본이다.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고구려이다. 이것은 조규후가 소장하고 있었던 두 벌의 광개토태왕비석본과 무명석, 황정총석, 정문각, 양수경, 유승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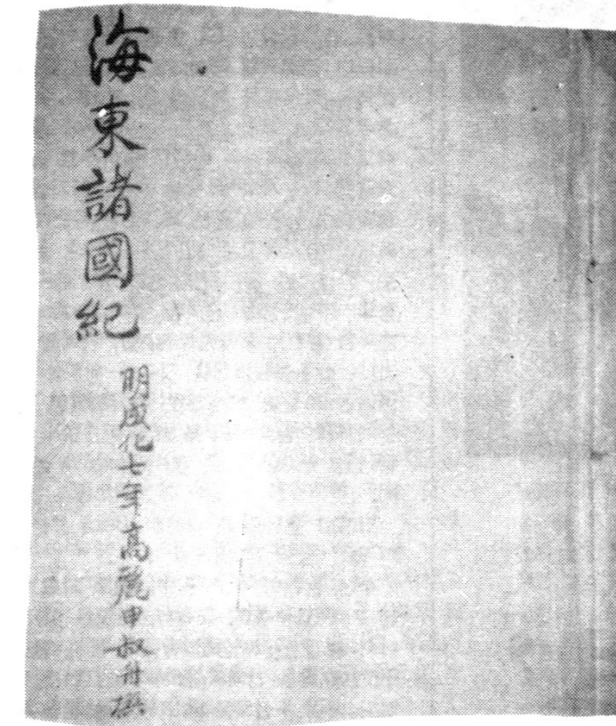
| | |
|-----|--|
| 번차 | 고구려호텔황비집석 |
| | 고구려호텔황비집석문(무명석, 1~7장) |
| | 고구려 비술 토기(황정총석, 1~15장) |
| | 고구려호텔황비집석(양표, 1~3장) |
| | 고구려호텔황비집석문(라진옥, 1~11장) |
| | 호텔황비집석문장(유승간, 1~3장) |
| | 고구려호텔황비집석교류기(조규후, 1~19장) |
| | 여학식-정묘준이월춘분후 상일 조규후유지(1~2장) |
| | 조선 조서기 |
| 10년 | 1년 지방행정 2년 경학행정 |
| 책일 | 3년 호구행정 4년 지적행정 |
| | 5년 토목행정 6년 위생행정 |
| | 7년 구제행정 8년 상공업행정 |
| | 9년 교육행정 10년 결론 |
| | 조선 고서 |
| 번차 | 오연고서-수가가(가자), 증수석약위대장군간중문(고구려유지문), 태명시(신라여왕승), 서희(최치원), 서교초본(이규보)-객청심부(정우) |
| | 오연율시-승문난초지공상인(최치원), 전기(김국기), 강현효은(허간), 이소부사(최경창)-추규(김정) |
| | 월연고서-유사곡(신라불지왕), 휘사기(김국기), 치술형(고전), 대일(백결선생), 고안형(홍화)-유가시(김지대) |
| | 오연절구-아유(최치원), 문자구(김부식), 김희(이재원), 불국사(김홍도), 절구(임억형), 내각형(최경창)-우회(정모항) |

라진옥 등 제씨의 석문을 한자한자 일일이 대비 교감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그가 소장한 탁본의 실상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교감본은 1926-7년 2년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교감본의 교감 내용은 제1번 13자, 제2번 24자, 제3번 30자, 제4번 17자로 도합 90여자에 이른다.

이 교감본에는 특자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교감하여 놓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이 교감본이 만들어진 뒤 학계가 오랜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 현재는 별 다른 이론 없이 읽고 있는 글자들을 조규후는 이미 이 교감본에서 현재의 결론과 특자 등이 들어놓은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그 뿐 아니라 이번 필자가 북경에서 찾아낸 광개토태왕비 최고의 탁본 실상과 같은 해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 기쁨에 보아 넘길 수 없는 희귀한 자료다.

조선조서기: 이 책은 필자가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찾아낸 책으로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다. 한중 관계사가 말해주듯이 이 두 갈래의 책은 중국에 수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있다. 현재도 명·청·중국인 문집에 들어 있는 한국학의 시문, 역사 자료나 한국학에 관한 그들의 단독 저술은 상당량에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개연성은 이미 '조천록'과 '연행록'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뒷받침해 준다. 조천사나 연행사의 기록은 역대 중국 왕실과 사류들이 부단히 한국학 관련 고서 중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거나 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판단되는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조선관회기: 이 책의 제목 그대로 공진회 회고 같은 여러 조지를 조사한 것이고, '조선행기'는 조사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필자본 1책 1합으로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인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이다.

의 활동 상황을 써놓은 일기다. 조선기사가 이 책은 명나라 예겸이 쓴 1책으로 된 필초본인데 청나라 동화의 사본으로 전한다. 북경도서관 소장본이다. 이 책은 필자의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는 책으로 여겨진다. 경태 원년(조선 문종 원년, 1450년)에 쓴 책이다. 이책의 저자는 경태 원년 정월 그가 요동에서 기정하는 날부터 매일매일의 일을 일기체로 써나갔다. 이들 일행을 맨처음 영정한 조선인은 의주병마절도사 조석경과 통사 김랜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 현재는 별 다른 이론 없이 읽고 있는 글자들을 조규후는 이미 이 교감본에서 현재의 결론과 특자 등이 들어놓은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그 뿐 아니라 이번 필자가 북경에서 찾아낸 광개토태왕비 최고의 탁본 실상과 같은 해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 기쁨에 보아 넘길 수 없는 희귀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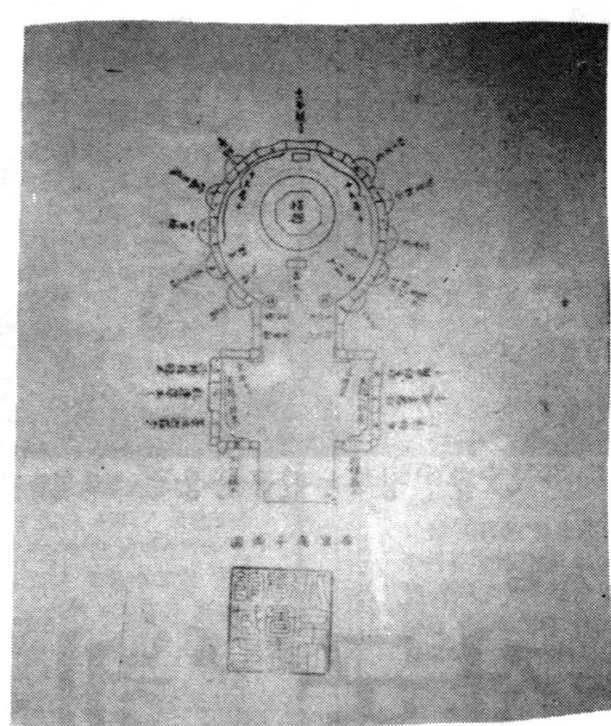
해동제국기: 이 책은 필자본 1책 1합으로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는 이본이다. 이 책의 제목은 '海東諸國記 明 成化 七年 高麗 申叔舟撰'이라 쓰여 있다. 성화 7년은 서기 1471년이다. 앞 부분에 모두 15장의 지도가 들어 있고, 이 책 말미에 '제1기'라 하여 표기와 함께 여러장 붙어 있다. 서편 첩로 된 특이한 이본이다.

삼관기: 이 책은 건·공 중만 전하는 수고본이다. 첫장에 '북경장수'라는 음해난관이 적혀 있다. 현재 공체 한글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책의 '삼관기'한문본이다. 처음 삼관이 이상으로 시작되는 것이 40장이고, 삼관이 이하로 시작되는 것이 30장으로 도합 70장 1책39면 본이다. 오연철의 한장본이다. 이 책의 첫행은 '春花田別業去都城數十里而近叙租判書公在玉堂時開相有如此人者前頭必不得進用矣座上客聞而傳之己而果驗'으로 끝났다. 그리고 '북경장수'라는 양각 난관이 적혀 있다. 이 '삼관기'한문본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타 중국인 저술: △양난 4종, △연화대사고려대경 2종, △고사주 6종은 한국 학과 관련이 깊은 책들이다. 정밀한 대비를 통해 판본별 차이를 알아보고 보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필자가 조사한 세 곳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책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거론을 생략한다.

한국인 저술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한국인 저술의 한국학 관련 책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그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꽤 많은 양이 될 것이라 짐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바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삼대목'과 같은 책들도 어디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스님을 비롯해



◇본고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석굴암 평면도이다.

서 불교학인만 볼 때도 삼국과 고려조만 2백50여명이 중국에 가서 활동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그보다 아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의 광범하고 철저한 조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찾아낸 중국에 있는 한국학 관련 저술로서 좀 특이한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성유신론속소: 이 책은 중국사회과학 도서관 등의 목록에는 보이지만 책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오랜동안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던 중 중국불교문물도서관 소장본을 찾게 되었다. 이 책은 신라 원종의 '성유신론속소'를 가지고 한·중·일 3국의 스님들이 벌인 유식불교 논쟁에서 원칙의 글만을 추려 대략 원년 순서에 맞추어 엮은 것이다. 권1-5를 1책, 권6-10을 1책으로 편책하여 모두 2책으로 전한다. 중국 시대의 사서로 소장본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지는 이본이다. 이 책의 제목은 '海東諸國記 明 成化 七年 高麗 申叔舟撰'이라 쓰여 있다. 성화 7년은 서기 1471년이다. 앞 부분에 모두 15장의 지도가 들어 있고, 이 책 말미에 '제1기'라 하여 표기와 함께 여러장 붙어 있다. 서편 첩로 된 특이한 이본이다.

삼관기: 이 책은 건·공 중만 전하는 수고본이다. 첫장에 '북경장수'라는 음해난관이 적혀 있다. 현재 공체 한글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책의 '삼관기'한문본이다. 처음 삼관이 이상으로 시작되는 것이 40장이고, 삼관이 이하로 시작되는 것이 30장으로 도합 70장 1책39면 본이다. 오연철의 한장본이다. 이 책의 첫행은 '春花田別業去都城數十里而近叙租判書公在玉堂時開相有如此人者前頭必不得進用矣座上客聞而傳之己而果驗'으로 끝났다. 그리고 '북경장수'라는 양각 난관이 적혀 있다. 이 '삼관기'한문본도 이번 조사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타 중국인 저술: △양난 4종, △연화대사고려대경 2종, △고사주 6종은 한국 학과 관련이 깊은 책들이다. 정밀한 대비를 통해 판본별 차이를 알아보고 보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필자가 조사한 세 곳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책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거론을 생략한다.

관개토태왕비탁본 12종: 이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가장 큰 수확이었다. 100여년 간 한·중·일 3국 학계가 이분야 연구에 활용을 못하고 방치했던 귀한 자료들이다. 청말 중국 금석학계의 일인자인 반초음이 소장하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탁본 2건, 중국 시대의 대표적인 금석학자 유승간이 소장하고 연구했던 탁본 1건,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진 중국 시대의 뛰어난 금석학자 조규후가 소장하고 그의 교감본 작성에 동원했던 명칭한 탁본 1건을 비롯해서 모두 12건의 광개토태왕비탁본을 조사할 수 있었던 일은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발표는 이미 제37회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1994.6.2)에서 한 바 있으며, 발표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다른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그리고 곧 출간 되는 '서평'에도 실릴 것이며 불문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석굴암 사진 1백장: 북경대학 도서관에는 석굴암 사진 1백장과 붓으로 작성한 석굴암 평면도 1장이 소장되어 있다. 석굴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다. 1합으로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문화 인식은 한국인들과 달랐다. 겉으로 보면 많은 문화재들이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고 관리를 포기한 것 같으나, 일단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그 내밀한 관리 체계가 한국을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다. 연구를 위한 내국인들의 문화 활용방법도 대단히 적극화 되어 있는편이다. 따라서 한국학 관련 고서나 고문서도 그들의 안목에 차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의 소중한 고서나 고문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필자 한 사람이 특정 지역의 몇 도서관에서 단지 일 내에 조사한 것이 위와 같은 것이므로 앞으로 여러 조사팀들이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임기중
(국문과 교수 고전시가론)

과학에세이

-컴퓨터 이야기

인터넷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컴퓨터 통신망, 즉 네트워크(network)란 말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거대한 양의 정보를 보다 먼거리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세계 곳곳의 연구원들은 그들의 작업을 이 컴퓨터 통신망 하에서 행하고 있다. 동료들이 작업한 내용과 수백만 권의 서적을 갖춘 가상 도서관(virtual library), 수천권의 논문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언제 어디서든 구해받지 않고 서로간에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지난 1969년 여름 미국 동부의 서부의 양측 실험실에서 일단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통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미국 전역의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 컴퓨터 통신망이 오늘날 컴퓨터 전문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혼을 빼놓는 거대한 국제 통신망인 '인터넷(Internet)'의 모태가 됐다.

이들의 초기 계획은 UCLA, 캘리포니아 대학, 스탠포드 연구소, 유타대 등의 네곳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첫 통신망 구축 장소(분기점)는 UCLA였으며, 각 분기점을 위해 구축 중인 설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제작이 행해졌다. 이 설비를 일컬어 인터페이스 메시지 프로세서(Interface Message Processor)라 하며, 데이터를 각 분기점으로 보내 정보가 적절히 전달되도록 한다.

1971년에는 MIT와 하버드 대학을 포함하여 20여개 지역의 컴퓨터가 연결됐으며, 1981년에는 2백개 이상의 지역이 연결됐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가입을 원했으며,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의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이 이 통신망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과 대학,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는 dongguk.ac.kr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은 일찍이 단순한 과학기자재 이상의 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크거나 속도면에서 천차만별이었지만, 각기 상대방과 온라인(On-line) 상에서 대화를 나눌수 있게 되었다. 전자우편(E-mail)도 급속도로 확산되어, 자신의 명함에 전자우편의 주소를 적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전산실에서 전화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 뉴욕의 어느 한 대학생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보라. 이것은 결코 SF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며, 여러분도 쉽게 접할수 있는 것이다. 수학에 대한 이론이나 정리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그것을 만든 수학자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보내어 문의를 하는 일들은 인터넷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을 모두 접할수 있게 된다.

이원영
(공과대 컴공과 대학원 석사과정)

'95년도 일본 용곡대학 단기 유학생 선발

- 1. 선발분야 및 인원**
가. 선발분야: 용곡대학 개설 전학과
나. 선발인원: 2명(학부 1명,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1명)
단, 대학원 지원자가 적을경우 학부에서 2명을 선발한다.
- 2. 지원자격**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자로 1년간 휴학이 가능한 자
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다.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일본어 회화 및 작문에 능통한 자
- 3.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학적부사본 1통
다. 재학증명서 1통
라. 성적증명서 1통
마. 지도교수 추천서 1부(소정양식)
- 4. 선발방법**
가. 학교성적(30%)
나. 1차-일본어 테스트(필기 20%, 회화 20%)
2차-면접(30%)
- 5. 시험일정(서울, 경주 동일함)**
가. 원서교부 및 접수: 9월5일(월)~9월13일(화)
장소: 국제부
나. 시험: 1차-9월22일(목), 2차-9월23일(금)
* 시험기간, 장소 추후발표
다. 합격자 발표: 9월28일(수)-국제부 앞 게시판(본관 2층)
* 경주캠퍼스: 원서교부- 경주캠퍼스 취업과
접수-국제부 우편접수
시험은 서울에서 일괄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부로 문의 바람
(전화 260-3024)

국 제 부 장

취업특강안내

'95.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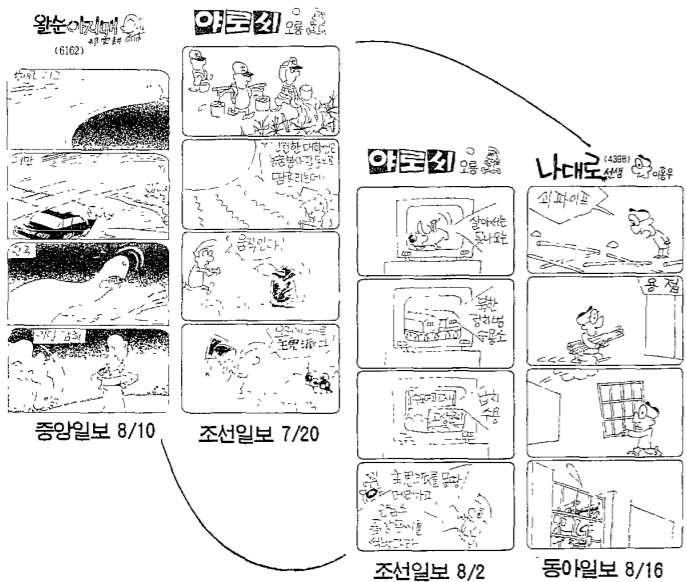
아 래

- 1. 일시:** 1994. 9. 13(화) 14:00~17:00
- 2. 장소:** 동국관 L301
- 3. 대상:** '9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전체
- 4. 내용:** 취업에 따른 제반 준비요령
(제출서류작성법, 면접요령, 채용경향, 기타 취업정보)
- 5. 주최:** 학생처 취업과
- 6. 기타:** 당일 취업관련자료집을 배부함.

학 생 처 장

‘시사만화’를 진단한다

운동권에 대한 폭력성 부각
사실무근의 극단적 논리 비약
일반적 정서임을 자처
극우·보수주의, 정권옹호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시사만화는 극단적 비유나 표현에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한층 우려된다.

“얼굴 갈라...”

대만에서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낸 A급 태풍 더그가 그 여세를 몰아 한국으로 향한다. 그러나 한국 상륙을 시도하면 더그는 갑자기 무연기가 될까? 그렇다. 그 앞에는 근엄하고도 담담한 모습의 김영삼 대통령이 버티고 서있고 더그는 그 위치에 놀라 고개를 숙이며 수그러진다.

지난 8월10일자 중앙일보 시사만화 ‘완손 아지매’가 보여준 풍경이다. 마치 공안정권에 고개숙인 현 언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감정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사만화 또한 그 신문사의 편견이나 보좌를 벗어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더 많은 연배의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뿐 아니라 극단적 비유나 표현에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한층 더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요즘 나타나는 시사만화의 표현양상을 바라보면 언론의 오만한 시류판단과 극우·보수주의, 정권옹호에 몰들어 있으며 오히려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던 날카로운 비평의 힘을 상실한지 오래다.

“오른쪽 비로...”

지난 7월20일자 ‘아로씨’(조선일보)는 ‘간절한 대학생은 농촌봉사로 답송하는데 학생의 발을 쓴 쥐새끼

가 주사파라고 돌아부쳤지만 이는 그들이 주장하듯 한층더 핵심세력이 주사파라면 농촌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것 또한 한층더 이르므로 앞뒤가 맞지않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시사만화가 이렇듯 비논리적 자기주장을 펼쳐 나가는 데는 몇가지 공통적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듯 하다.

운동권에 대한 폭력성 부각, 사실무근의 사건을 소재로한 극단적 논리비약, 보수·극우주의 무조건적 옹호,

일반적 시인임을 자처하며 대중의 시 조작-‘완손 아지매’에서 잘스는 수단중의 하나가 ‘이것이 보편적 국민정서’나 ‘일찍된 정서’니 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주사파는 북한으로 보내라’와 ‘김일성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약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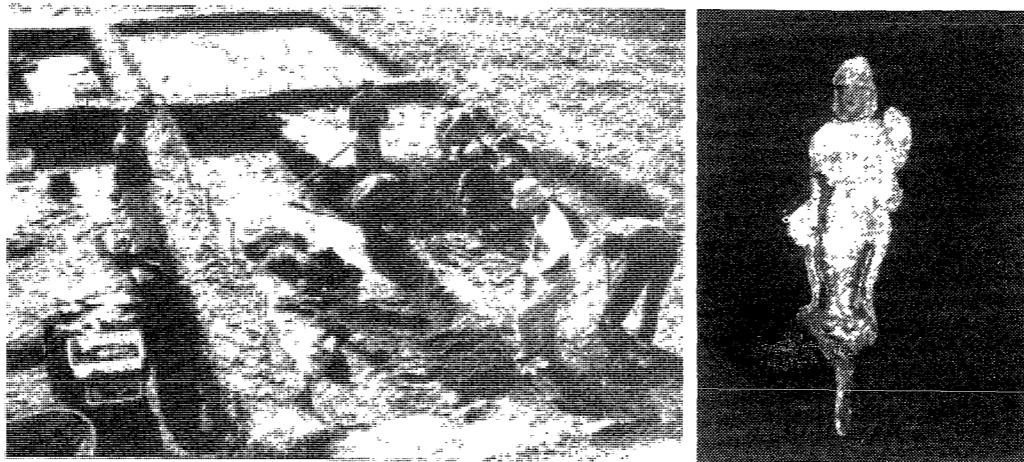
한겨레 그림판에서의 예리한 풍자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재홍씨는 그의 저서 ‘만화 내사량’을 통해 ‘시사만화란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그러면서도 좋은웃음을 선사해 준다고 말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시사 만화들은 이러한 기쁨을 선사하는가? 비록 일부 보수언론에 한하는 얘기지만 대답은 ‘아니다’이다.

(허동혁 기자)

◇ 잃어버린 역사 발해 불적을 찾아서

발해절터, 당시 불교위치 보여주는 산증
금동보살입상 석불좌상등 1천여점 발굴



◇무더위속에서도 한달간 강행된 발굴로 인해 건물지 4곳, 대석축, 탑지 등 크라스키노사원지의 전모가 드러났다. 오른쪽 사진은 이번엔 출토된 뛰어난 발해문화유물을 엿볼 수 있는 금동보살입상.

“조선의 부동항 블라디보스톡” 옛 소련에서 열지 않는 항구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국민학교때부터 달달 외웠던 기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리라. 그래서 그런지 때론 신비에 싸인 항구도시로 우리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사실 조선 국공합대가 주둔하고 있는 절벽같은 군사요새에서 개방이전에는 누구도 접근 불가능한 폐쇄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개방화되지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 지금은 상점마다 우리의 상품이 그득하고 거리의 노점상마다 “베트남 코리안”의 주스와 견, 과자와 라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대형영까지 다나가는 우리와 지극히 친근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전방대나 블라디보스톡의 참가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전경은 한마디로 가장 아름다운 미항의 하나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이런 사실은 배를 타고 외항쪽으로 가다보면 더욱더 실감하게 된다. 발해불적(佛跡)이 있는 크라스키노 성터를 찾아가자면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배를 타고 슬라비양가 까지 2시간 30분정도(배속정 1.30분)가서 다시 차로 3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주사파는 북한으로 보내라’와 ‘김일성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약한이다’.

한겨레 그림판에서의 예리한 풍자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재홍씨는 그의 저서 ‘만화 내사량’을 통해 ‘시사만화란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고, 그러면서도 좋은웃음을 선사해 준다고 말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시사 만화들은 이러한 기쁨을 선사하는가? 비록 일부 보수언론에 한하는 얘기지만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시사 만화들은 이러한 기쁨을 선사하는가? 비록 일부 보수언론에 한하는 얘기지만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시사 만화들은 이러한 기쁨을 선사하는가? 비록 일부 보수언론에 한하는 얘기지만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시사 만화들은 이러한 기쁨을 선사하는가? 비록 일부 보수언론에 한하는 얘기지만 대답은 ‘아니다’이다.

에 우리의 임시발굴캠프가 설치되고 우리는 여기서 한달이나 기거하게 되었다. 컨테이너 3동에 수십채의 텐트가 숲속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어서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발굴단캠프에 손색이 없다.

“동해바닷가 지척에 있는 강가의 숲속” 이라면 무척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사실 경관만 따져보면 이곳은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풀간대 없는 넓은 평야가 갖가지 꽃과 풀로 어우러진 평원을 가로질러 작은 강지류들이 바다로 흘러들고 수도없는 갈매기 떼들이 하늘 가득히 비상하는 가운데 아슬아슬 전개면 먼 원산으로 붉은 노을이라도 곱게 물들면 정말 황홀한 장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열악한 숙식(宿食)만 아니라면 피서지로서 만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장쪽은 20~30m정도, 고무보트로 강을 건너면 곧바로 키보다 큰 갈대숲을 헤쳐가게 된다. 이곳을 벗어 나면 키만한 잡초와 꽃들이 어우러져 펼쳐져 있고 이런 길을 1km남짓 지나면 성벽과 마주치게 된다. 성은 평야 한가운데 20여만평방미터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전모가 한눈에 들어올만큼 잘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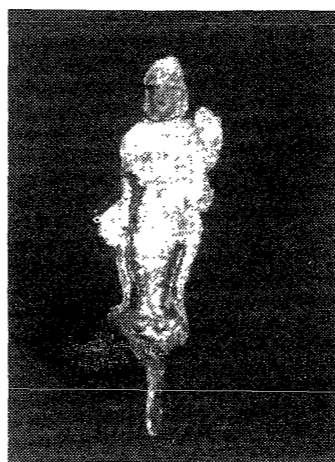
우리가 발굴하게된 발해 절터는 성의 서북쪽 약간 높은 대지 위에 성벽과 면해 있다. 말하자면 성내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해당시 불교의 위치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이는 불교유물이 쏟아져나와도 사원이 아니라 관청일 가능성은 찾아 버리지 않았던 것도 일면 무리는 아니라고 양해하게 된다.

절의 너비는 대개 70x70m 사방

절의 너비는 대개 70x70m 사방

절의 너비는 대개 70x70m 사방

절의 너비는 대개 70x70m 사방



◇무더위속에서도 한달간 강행된 발굴로 인해 건물지 4곳, 대석축, 탑지 등 크라스키노사원지의 전모가 드러났다. 오른쪽 사진은 이번엔 출토된 뛰어난 발해문화유물을 엿볼 수 있는 금동보살입상.

으로 보여지는데 1981년도에 러시아 극동연구소에서 금동으로 생각되는 건물을 발굴하여 다량의 기와들이 출토된 적이 있다. 이번 발굴은 이 건물 전면의 좌우를 발굴하는 일이었다. 7월23일부터 8월20일까지 약 1개월 이라던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던 때이다. 국내의 온도가 연일 35에서 39도를 오르내리던 때가 아닌가.

이 지역도 근대 불수 없는 혹서여서 바람이라도 불지 않는 날에는 찜통의 무더위 때문에 약전고투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역만리 땅에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발해를 찾으러 발굴간 우리들로서는 황금같은 시간을 잠시도 쉴수 없어 강행군도 불사했는데 러시아의 학자들은 물론 학생인부들도 편타바람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어 계획이상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러서 건물지 4곳, 대석축, 탑지 등이 발굴되어 크라스키노사원지의 전모가 거의 드러나고 되었고,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금동불수(金銅佛手), 석불좌상, 신장상과 탐우마루보병연화장식, 발해삼채(三彩)그릇, 각종 막새기와등 찬란한 발해문화유물 1천여점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천년을 땅속에 묻혀있다가 홀연히 드러난 아름다운 자태와 신비스런 미소에 우리모든 발굴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던 황홀한 추억은 못내 잊지 못하리라. 고구려를 계승하고 신라와 교류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발해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우리앞에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 않은가.

문명대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문명대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문명대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문명대 (예술대 미술학과 교수)

달 하나 천장에

“빈 자루는 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활양식, 내 마음에 드는 삶의 스타일 등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욕망의 발로일 것이다.

현대의인 지적생활은 무엇을 성취한다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상태”를 말한다. 이런 정신상태는 극단적인 낭만적 이상주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대인은 비난받을 일을 두려워하지도 또는 수치로 생각지도 않으니까. 현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쳤고 광범한 지식계급이 이미 사회에 자리를 차지해 잡고있는 상태여서 이제 개인의 여가의 질이나 양식도 전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극수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등을 현 신적처럼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즘은 코스모폴리탄적인 사고로 생각을 바꾸어야 할 단계에 와있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닐는지.

전 시대의 낡은 인생관에서 탈피하여 참신한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세계인으로의 탈바꿈을 말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의미에서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한다”는 마르티의 주장을 패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낡은 도덕의 원리는 이제 그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개인이 현명해야 사회나 국가도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동체 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상의 교양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무엇이 최상의 교양인을 만드는가? 그것은 개인의 승화에서 연유한다. 개인의 승화없이 문화의 창달은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개인의 승화는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성, 야망 그리고 야심을 겸비한 건전한 상식인이 됨을 말한다. 독서와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식인, 고급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양식(양식)을 갖춘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에 두렵게 걸렸을 때 사회개조라는 표어를 앞세우며 목적을 뚫고, 폭력으로 체제에 도전할 시도를 하지않아도 된다. “빈 자루는 서지 않는다”는 프랭크린의 격언을 진지하게 다시 되짚어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 어떤 이론이든 그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론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 어떤 이론이든 그 이론의 배후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에서 “학문적인 토론으로 뜻을 피우는 일이 레지아이션”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대학인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 대학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다. 단 그 특권을 정적(靜的)인 독서에서 찾을 때 빈 자루가 채워지지 않겠는가.

김정근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문학단신

◇새책 ‘김성곤교수의 영화에세이’

할리우드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한 에세이 형식의 영화비평서로 미국영화의 특성을 주제별로 모아 최근에 개봉된 영화를 분석했다.

김성곤 지음/ 열음사/ 값 7,000원

◇‘노래선언’ 가을맞이 공연

지하철 노래패 ‘소리들결’과 대우자동차 노조 노래패 ‘참소리’가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전체 2부로 구성, 대부분이 창작곡으로 민주노총선선, 산별노조정치의 내용을 노래한다.

9월 4일 4시/인천시민회관 대강당, 9월11일 4시/경희대 크라운관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삼성



선인장을 선인장으로 만드는 건 가시?

동물로부터 선인장을 보호하는 가시 — 햇빛을 차단하여 체온상승을 막고 몸체 가까이 공기층을 형성, 건조한 기류를 약화시켜 수분증발을 막아줍니다. 또, 이슬을 모아 땅을 적시줍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선인장을 살리는 보이지않는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가시입니다.

삼성데이타시스템(SDS)도 시스템으로 국가경쟁력을 살립니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으로 국가조직 전체에 “정보”라는 수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SDS / 국가의 신장조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있습니다.

종합정보서비스의 선두기업, SDS — 연평균성장률 40% 이상의 SDS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십시오.

- 주요 사업분야
 - 종합관리(SM)
 - 고객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통합(SI)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
 - 전세계를 연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컴퓨터 통합생산(CIM)
 - 제조부문의 종합생산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
 - 국내 정보서비스산업에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



삼성데이타시스템

중국 중앙희극학원과 자매결연

일본 대정대 학장 본교 방문, 교류심화 논의



◇본교는 예술대학 중심의 학술·공연 교류를 내용으로 중국 중앙희극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는 지난달 29일 중국 중앙희극학원과 본교 예술대학과 학술·공연 교류협정을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총 18개의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북경의 중앙희극학원에서 본교 송석구 부총장과

중앙희극학원 서효중학장 등이 모인 가운데 맺어졌는데 김홍우(연극영화화) 교수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중앙희극학원과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자매결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교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보다 내실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대정대학 학장인 하야시 로서를 본교에 초청해 학교시설 방문, 불교대학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학술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관재과, 전산터미날 설치 강의시간·학생주소 등 제공

관재과(과장=오복용)는 오는 9월2일까지 교내에 학생용 전산터미날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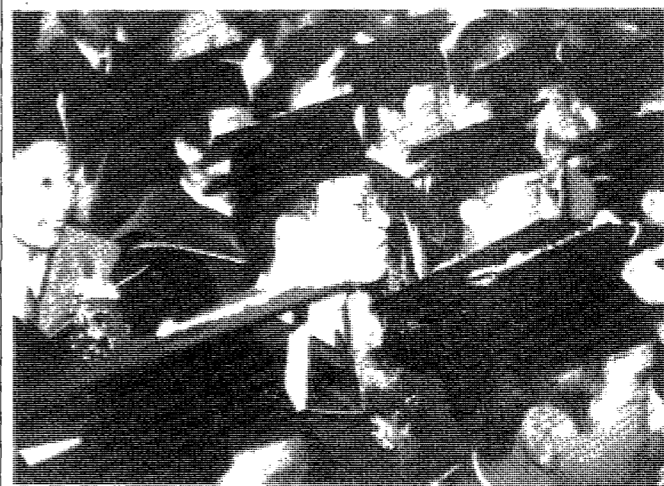
이 전산터미날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교수 △학생주소확인 및 정정 △취업정보 △교내소식 등이다.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단말기 수는 공회 1대씩이다. △명진관 △원흥관 △해화관 △학생회관 △풍곡관 M동, L동 △학림관 △도서관 입구

말기를 이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공사배 레스링대회

이영성군등 3명 입상

제19회 한국방송공사배 전국 아마추어 레스링대회가 지난 23일에서 26일까지 4일간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90kg 자유형 2위에 최동주(체육교육4)군, 52kg 자유형 3위에 이재욱(경영2)군, 52kg 그레코로만형 1위에 이영성(경영3)군이 입상했다.



기쁨 반, 두려움 반 ◇9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6일 중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박사 33명 등 총 4백73명의 졸업생들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하다. (이석종 기자)

인철과, 김교수 퇴진 요구 강의 전면 수강 거부 결의

인도철학과 김모교수의 복직을 둘러싼 학생회와 학교당국간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철학과 학생회(회장=이상환)는 지난 23일 본관(C204)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 문제제기를 하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사태해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측은 또한 지난 25일 비상학생총회 결과를 갖고 김교수를 면담했다.

여기서 인철과학생회는 △김교수의 퇴진 요구 △김교수 퇴진요구의 첫번째 실천으로 김교수의 강의를 전면 수강 거부한다. △김교수 퇴진요구를 인철과 대학원과 함께 논의, 행동한다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한편 학교측은 일단 수업을 들어

정일근스님 초청대법회

정각원(원장=한태식·선학)은 '선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정각원 법당에서 제59회 본사 범주사 주지 정일근스님 초청대법회를 오는 6일 갖는다.

야총, 생활문화혁신운동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곽유찬·영문3 이하 야총)는 오는 9월 말에 있을 남산골 한마당에 앞서 다음달 초부터 '생활문화 혁신운동'을 실시한다.

·여학생부처 관계자, 일부동아리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여입방식을 가졌다. 새로 단장된 총여실은 손짓사랑회와 민중미학연구소가 공동사용하던 곳이다.

대학농구연맹전

연세대와 오늘 첫 경기 대학농구연맹전이 오늘(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간 개최된다. 본교 농구부는 첫날인 오늘(31일) 연세대의 경기가 있고, 내일(1일)은 한양대, 9월3일엔 건국대와 각각 경기를 갖는다.

일 리

지난호(1153호 8월24일자) 11면 회전문대 기사중 학생회관의 다용도실에 대한 기사인 '다용도실'은 경주캠퍼스와 관련된 것임이 밝혀졌다.

총여학생회 입방식

총여학생회(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는 지난 26일 학생회관 2층에서 부총학생회장장과 각 단과대

학생회관 공간부족 심각

동연, 연화원 공간 학생 주체관리 요구



◇동아리 권익투쟁과 저저공간 확보'를 위해 학생회관 앞에서 강의농성중인 동연.

제10대 동아리연합회(회장=이영석·물리4 이하 동연)는 지난 24일부터 동아리의 공간확보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동연은 총여학생회(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의 부활로 인해 총여공간을 임시로 쓰고있던 동아리(손짓사랑회, 민중미학연구소)가 활동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학교측에 연화원공간의 학생주체관리를 요구하며 학생회관앞으로 동연 사무실을 옮겨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10년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된 것이 연화원이다. 연화원은 가정교육과 실습실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학생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다"며 "동연측의 요구대로 연화원을 옮기게 되면 여학생들의 빈방이 생겨 학교로서는 이종고를 안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동이 현시점에서는 최상책이라고 말하는 입장이다.

한편 동연은 학교측의 협상에 대한 불성실성을 규탄함과 동시에 개별 동아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동연은 △전동양인을 상대로 시업을 하지않고 신입생 확보가 없으며 분과회의에 계속 불참해온 '길희'를 동아리연합회에서 제명시켰고 △공간문제해결과 동아리 권익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여 전체 동아리 대표회의에 상용하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동연 총무부장 이병곤(인철3)군은 "이번 공간문제를 계기로 학교측의 누락되는 선거철의 잠깐행정을 비판하고 동시에 떨어진 전체 동아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군은 "이번 문제는 공간만이 아닌 안정적 동아리활동을 위한 물적도태이다"라며 전체 동아리의 참여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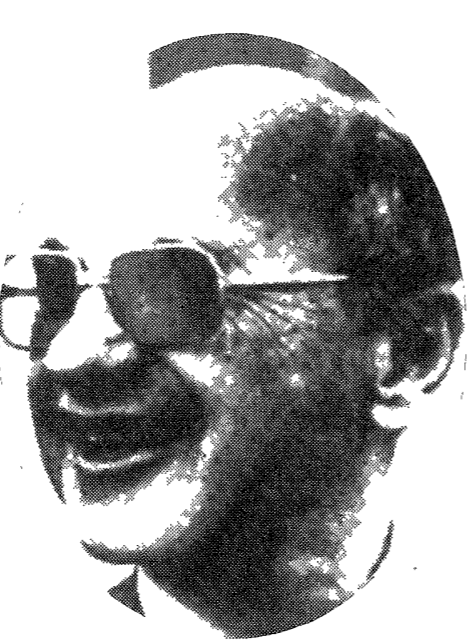
한편 어제(30일) 오후5시 대책위 발족식이 학생회관앞에서 열렸다. 오는 9월1일 열리는비상 전체 동아리 대표회의에 앞서 대책위의 결의문을 다짐하고 전체 동아리에게 참여, 단합을 촉구하고자 열린 이번 발족식은 간간히 비가 오는 가운데 1백여명이 참석, 진행됐다.

동연부회장이행재(아간경제4)군은 "해마다신규동아리는늘어가고모자라는공간을미봉책적으로모면하는 동연의 모습이 지금까지 공간문제해결의 모든 모습이었다"며 "상층부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단위동아리의 요구에 근거한 종합적인 권익대책안을 만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차근차근 동아리인에게 알리고 분과회의의 운영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동대회속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확정지어 정중하게 학교측에게 제출하겠다"고 결의했다.

세계로 눈을 돌립시다 - (1)사카고 대학



클린턴 J 데이비스, 질정구조에 의한 전자회절현상의 발견으로 193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빌튼 프리드만, 소비콜론, 동화이론에 관한 공적으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송 벨로, 미국산업사회 소비자들에 관한 소설, 《원본의 선물》(희생자)로 1976년 노벨 문학상 수상.

노벨상의 신실 사카고 대학 -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불빛이 세계의 명문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노벨상 - 한 국가가 한 사람도 배출하기 힘들다는 노벨상 수상자가 사카고 대학에는 여러 명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의 데이비스, 노벨 경제학상의 프리드만, 노벨 문학상의 송 벨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로 세계의 명문으로 성장한 사카고 학과와 전당, 사카고 대학 - 지금, 세계의 대학은 꺼지지 않는 연구실의 불빛으로 21세기를 밝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

공보처

